

도미니카공화국, 재정악화로 IMF 차관지급 보류

국별조사실

□ IMF 차관지급 보류

- 2003년 8월 IMF는 도미니카공화국과 2년 만기 총 6억 달러의 대기성차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분기별 경제운용 검토(review of program)를 통해 차관을 제공해 왔음.
- 그러나 금년 들어 도미니카공화국이 IMF와 합의한 재정수지 목표치를 2분기 연속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차관 지급을 일시 보류함.
 - o 1/4분기 도미니카공화국의 재정수지(금융비용 제외)는 IMF와 합의한 목표치(3억 페소 흑자)에 크게 모자란 32억 페소 적자를 기록하였고 2/4분기에도 5월 대선에 따른 재정지출 과다, 세원 감소 등으로 적자규모가 35억 페소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됨.
- 그러나 Fernandez 대통령 당선자가 재정 및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동시에 IMF 합의사항 준수를 약속함에 따라, IMF와의 차관 집행 재개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.

□ 신정부의 개혁정책 : 조세와 금융개혁

- 신정부는 Baninter 은행 파산과 과거 배전회사의 재국영화 결정 등이 현재 경제위기를 야기했다고 판단, IMF가 요구한 금융과 재정 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.

-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상업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, BIS 자기 자본비율 준수 등을 위하여 총 400~500억 페소가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.
- 그리고 재정개혁을 위하여 현 Mejia 정부와 합의한 조세개혁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한 상태임.
- 동 개혁안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(ITBIS)를 평균 12-16% 인상, 연간 22억 페소의 추가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임.

조세개혁안 주요 내용

세 율	대 상
3%	재산 거래
10%	통신료, 광고료
15%	은행수수료
16%	보험료
20%	임차료, 주세(맥주 포함)
130%	담배(이전 65%, 분기별로 물가에 따라 조정)

자료 : EIU Viewswire

□ 향후 전망

- 투자자들의 신뢰가 양호한 Fernandez 신정부의 출범으로 IMF의 차관 지급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나, 신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임.
-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조세개혁안이 비록 현 Mejia 대통령과 합의한 사항이지만, Mejia 대통령의 민주혁명당(PRD, 다수당)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

의원이 많아, 조세개혁안의 의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- 금융개혁도 지난해 Baninter 파산 이후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조달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자기자본 비율의 준수와 대손충당금 비율의 급격한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,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현 재정상황으로 곤란한 실정임.
- 결국,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, IMF와 합의한 기초재정수지(GDP의 2.5% 흑자), 공공부문 재정수지(GDP 3.8%적자) 등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, 이 경우 IMF 차관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전문연구원 최성규(☎3779-6665)
E-Mail : ppio93@koreaexim.go.kr